

# 2013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3.6.27(목) 15:00~17:00

## 1. 위원 주요 발언 내용

### ▲ 뉴스Y 나아지고 있지만 개선 노력 필요해

-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취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해. 연합뉴스의 취재망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선수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심층 취재했으면(최종준 위원)
- 중요한 뉴스의 경우 '뉴스1번지' 방송 시간(3시 반)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 전이라도 내용을 전달할 필요 있어(한박무 위원)
- 원전비리 관련 보도 비중 작아.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향제시 등을 깊이 있게 다뤘으면(차경애 위원)
- Y초대석에서 이미 출연했던 동일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은 개선됐으면(차경애 위원)
- 뉴스Y가 민간의 창조경제에 관한 집중 기획을 한다면 공익성을 얻는 유익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(임상혁 위원)

### ▲ 방송용어 철저히 개선해야

- 타 방송사 기자에 의하면 뉴스Y의 8시, 9시 뉴스가 약하고 힘없이 느껴진다고 함. 경제민주화, 일감몰아주기, 납품단가 후려치기, 돈맥경화, 한국경제의 직격탄 등과 같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(임상혁 위원)
- 방송용어를 정제해서 표현해야. 예로 '불출마를 선언했다'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표현. 또 아이쇼핑은 '원도우쇼핑'으로 표현해야. '북침'이라는 표현도 북이 침략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(최종준 위원)
- 언론이 외래어 표현뿐 아니라 우리말 자체의 표현을 정제할 수는 없어. 우리나라 국어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외래어도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(김정연 위원)
- 뉴스자막의 함축적 표현 더욱 신경 써야. '폭행여성을 구하려던 50대 남자가 사고를 당했다'는 내용은 폭행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(김정연 위원)
- '꿈수를 쓴다'라는 표현을 기사화 할 때 YTN은 '부정적인 행보를 한다'로 정화해서 표현해(한박무 위원)

### ▲ 시청률보다 보도 내용 및 방식에 집중해야

- 뉴스Y와 타 방송사의 시청률 차이는 큰 의미 없어 보여. 전략적 편성 필요해. '맹찬형의 시사터치'의 경우 국제뉴스의 보도가 얼마나 차별화를 이뤘는지, 정확한 해석을 했는지 의문. 전문성, 흥미성 가미해 시청자 안목 넓혀줘야(김경모 위원)

- 뉴스Y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. 장관급 회담의 경우 타 언론사에서는 지나친 속보경쟁을 했지만 뉴스Y는 중요한 상황 발생 시에만 적시에 생중계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 엿보여(한박무 위원)

#### ▲ 보도의 공정성 및 정확성 확보해야

- 정치적인 공세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면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될 수 있어. 또 정치적인 내용 보도 시 공정성을 위해서는 실제 이미지와 맞는 화면구성 해야(한박무 위원)
- 상황에 대한 실제 상황을 알고 보도해야. 개성공단 보도 시 실제로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과도하게 힘든 것처럼 보도해(한박무 위원)
- 부도덕한 내용의 보도 시 일률적으로 편파보도해서는 안 돼. 예로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(한박무 위원)
- 한국전쟁 관련 내용에서 젊은 층은 몇 년도에 전쟁이 발발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.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다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(김경모 위원)
- 대통령 방중 특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기대감만 높이는 형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. 냉정하게 평가해 시청자들에게 중국은 동반적 협력 관계보다 북한하고 더욱 가깝다는 것을 인지시켜야(김경모 위원)
- 뉴스특보의 경우 뉴스Y에서는 패널 한분만을 초대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해 아쉬워.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다양한 의견 내야 본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돼(이석구 위원)
- 대통령의 방중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여성대통령의 패션문제에 대해 너무 과도한 보도를 하는 것은 접근방법이 잘 못 돼(이석구 위원)

#### ▲ 방송내용에 부합하는 화면 내보내야

- 화면을 구성할 경우 내용과 일치해야. 예로 현충일에 백세노모, 지팡이 짚은 노인 등이 나왔다는 설명했으나 실제 화면에는 아무도 없어(한박무 위원)
- 9시뉴스에 여자 앵커가 하는 오프닝 멘트와 바로 이후에 나오는 스포츠 기사 내용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. 앵커는 열광적인 야구팬에 대해 스포츠 기자는 일반적인 스포츠 중계로 앞뒤 상황설명이 전혀 달라(김정연 위원)

#### ▲ 자막처리, 편집 등 개선 필요해

- 뉴스Y의 자막 바탕이 주황색인데 자칫 어두워 보일 수 있어. 내용이 무거운 주제일 때에는 괜찮지만 밝은 내용일 때에는 어울리지 않아(최종준 위원)
- 자막처리가 화면과 다르다는 얘기는 연합뉴스의 속보가 들어갈 때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. 시청자들이 방송사고로 오해할 수 있어. 색상 자막, 흐름 속도, 영어, 언어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(김정연 위원)
- 뉴스특보 타이틀이 다른 프로에 나오거나 재방송할 때에는 특보 타이틀은 빼야. 재방송이나 타 프로그램에서 해당 뉴스가 나올 때 그대로 방송돼(한박무 위원)

### ▲ 편성시간 적절한지 고민해야

- '맹찬형의 시사터치'의 편성시간이 적당한 것인지 궁금해. 오전 10시 정도면 전업주부들이나 노인들이 주 시청자이기 때문에 감안해 편성해야(김정연 위원)

### ▲ 기타

- 재미있고 흥미있게 보도해야.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를 보고 난 후 좋은 기분이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(한박무 위원)
- 다문화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하모니의 '우리아들 승현이를 지켜주세요'편 좋아.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(차경애 위원)
- 뉴스Y는 뉴스나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이 장점. 특히 '맹찬형의 시사터치'의 남북장관급회담과 '북한은오늘'이 잘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(차경애 위원). (끝).